

전남도, 올 상반기 수출 증가율 '전국 최고'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2% ↑
석유제품 수요 확대 상승 견인
K-푸드 인기 농수산물 호조

전남지역 올 상반기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증가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도내 수출

액은 253억7,000만 달러로 작년 상반기보다 32.4% 늘어났다.
이 같은 증가율은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다음이 대구 31.4%·인천 26.3%·울산 25.9% 등 순이다.
고유가 지속과 신흥국 경기 회복에 따른 석유제품 수요 확대 등이 도내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주요 수출 제품인 광물성연료가 92억9,000만 달러로 106.1% 증가했고, 석유화학제품이 89억 8,000만 달러로 17.1% 늘었다.

또 케이푸드(K-Food)의 꾸준한 인기에도 따라 지속적인 현지 수요 증가로 농수산물품은 3억 1,000만 달러(18.4%), 김은 1억2,800만 달러(38.5%), 전복은 2,400만 달러(50.4%), 오리털은 1,600만 달러(21.0%), 음료는 1,600만 달러(84.3%), 미역은 900만 달러(18.7%), 커피 조제품은 800만 달러(164.0%)의 수출을 달성했다.
철강제품은 중국내 봉쇄 영향으로 제조업 철강 수요가 위축되면서 4.2% 감소한 34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중국 51억9,000만 달러(1.0%), 미국 20억9,000만 달러(59.1%), 호주 20억6,000만 달러(358.4%), 베트남 16억 8,000만 달러(91.6%), 일본 16억 달러(13.8%) 순이며,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이 가운데 호주는 국제유가와 에너지 소비량이 동반 상승한 가운데 여행수요 회복 등에 따른 항공유(제트유) 수출까지 대폭 늘어나 지난해 6월 수출국 12위에서 올해 3위로 뛰어올랐다.
반면, 독일은 주요 수출 품목인 석유화학제품

과 철강제품이 각각 4.8%, 22.7% 감소해 1억 2,000만 달러를 기록, 10.5%가 줄었다.
신원근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코로나19 장기화, 유가 강세 지속 등 연이은 악재 속에서도 상반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출 증가율을 기록했다"며 "하반기에도 중소기업의 수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수출보험료·담보한계 특례보증 확대 지원, 미주 온라인 전용물 개설 등 지자체,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고 각종 해외 마케팅 등 수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오선우 기자

“‘갯벌 천국’ 전남 블루카본 육성해야”

광전연, 전략 보고서 발간
국내 갯벌면적 42.5% 점유
“탄소 감축 기술·제도 선점”

블루카본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이 국제적 주목을 받고있는 가운데 전국 최대 갯벌을 보유한 전남도가 블루카본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전남연구원은 25일 ‘블루카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남 대응전략’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블루카본이란 해초, 염습지, 맹그로브(mangrove) 등 해양 생태계에 의해 흡수되는 탄소를 말한다. 푸른(blue) 바다가 탄소(carbon)를 흡수한다고 해

서 명명됐다.
연구원에 따르면 블루카본을 탄소 감축원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포함하는 국가가 증가하는 추세로, 국제적인 연구개발과 투자가 가속화되고 있다.
또 카리브해 바하마 정부, 중국 하이난성 등 각국 정부와 글로벌 기업들이 블루카본을 주거래로 하는 탄소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24년에 우리나라 갯벌을 NDC에 포함시킬 예정이며,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블루카본 평가체계 구축 및 관리기술 개발연구 추진 등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블루카본 정의 등을 규정한 법적 기반이 부재한 실정이다.
광주전남연구원 김태형 부연구위원은 “전남은 연간 60만톤의 이산화탄소

를 흡수 저장할 수 있는 국내 총 갯벌 면적에서 42.5%를 차지하는 등 블루카본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광양만경제자유구역이 있어 국제시장 진출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만큼 블루카본이 탄소 상쇄 프로그램에 포함될 것을 대비해 전남이 블루카본 국제 거래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이어 “전남 블루카본 중장기 로드맵인 전남도 블루카본 종합계획(가칭) 수립이 선행돼야 하며, 광주·전남지역 거점대학과 연구기관이 블루카본 분야 R&D를 확대해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근산 기자



전남도-시·군 국고확보 전략회의 박창환 전남도 정부부지사 25일 오후 도청 서재실에서 2023년 국고확보를 위한 도-시·군 대응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전략회의에는 도 기획조정실장, 정책관, 예산담당관, 부시장, 부군수, 국고 예산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전남도 제공

도, 사료구매 1,972억 추가 지원

융자금리 1.8→1.0%

전남도는 25일 “사료가격 인상, 수입축산물 무관세 적용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특별사료 구매자금으로 1,972억원을 추가 확보해 총 2,463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예산 추가 확보와 함께 농가가 부담하는 융자 금리를 기존 1.8%에서 1.0%로 인하하고, 상환기간도 2년 거치 일시상환에서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연장했다. 농림수산업자금융 보증자금 사료구매 특례보증 한도액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했다.

이는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축산농가 경영안정 대책을 정부에 건의하고, 전남도의회에서 배합사료 가격 인상에 따른 특별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한 것이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은 신규 사료 구매비와 기존 외상 금액을 상환하기 위한 융자 지원에 쓰인다. 지원 대상은 소, 돼지, 닭, 오리, 사슴, 말, 염소, 토끼, 메추리, 꿩, 타조, 꿀벌, 거위, 칠면조, 기러기를 사육하는 농가다.
지원액은 축종별 사육 마릿수에 따라 차등을 뒀다. 소·돼지·가금 사

육농가는 6억원까지, 염소·사슴·꿀벌·말 등 기타 가축은 9,000만 원까지다.
다만, 돼지·가금사육 농가 중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피해를 본 농가는 한도를 9억원으로 늘렸다. 피해농가에는 조류인플루엔자 경계지역 내 사육농가, 역학농가, 살처분 농가 등이 포함된다.
박도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배합사료 가격 인상으로 축산농가의 생산비가 최대 20%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사료구매자금을 신청하지 않은 농가는 읍면 주민센터를 통해 꼭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오선우 기자

행복노인전문요양원과의 만남을 환영합니다.

행복노인전문요양원은 2010년에 설립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정 요양기관으로 노인복지시설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복노인전문요양원은 내 부모님이 편히 쉬 수 있는 집이라는 이념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수년간을 노력하였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내 집과 같이, 내 가족과 같이 항상 곁에서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책임지겠습니다.



1. 식사, 세면, 양치, 면도 등을 포함하여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맞춤형 또는 전반적인 도움을 드려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2. 의료기관의 연계 및 촉탁의사 방문, 약 복용 관리, 외래병원 관리 및 진료 등 어르신들의 질병 노출 및 예방에 힘쓸 것이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3. 간호처치, 물리치료 및 운동 치료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통해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해드립니다.
4. 인지기능 프로그램과 여가프로그램, 개별적인 영양 보호를 위한 영양 관리 지원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케어에 힘쓸 것을 약속드립니다.

어르신들의 노인성 질환에 따라, 신체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행복노인전문요양원 문의. 062) 412-2000



정기 브리핑

송갑석 “민주적 통제 필요한 것은 윤석열 정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송갑석 의원은 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류삼영 총재의 대거발령 조지를 두고 “민주적 통제가 필요한 것은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국이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며 경찰 통제를 밀어붙이는 모양새가 영락없는 ‘검부 독재’이자 ‘내로남불의 극치’”라며 이

같이 비판했다.
또 “그동안 검찰은 어땠나. ‘검란’이란 말이 익숙할 만큼 검찰의 집단행동은 거침이 없었던 어떤 제도도 받지 않았다”며 “평검사 회의만 따져봐도 2003년 이후 지금까지 7번의 집단행동이 있었으며, 차장검사, 검사장 등의 집단행동은 이루 셀 수도 없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평검사·검사장 회의는 성



공한 항거로 전국 경찰서장 회의는 집단 항명으로 치부하는 윤석열 정권의 이중 잣대는 분명한 문제”라며 “경찰개혁은 권력으로 짓누르고 입을 틀어막으며 밀어붙인 사안이다. 제대로된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 민주적으로 풀어가야 할 일이다”고 지적했다.

주철현,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갑)은 25일 “누구든지 아동학대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행위의 주체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과 ‘누구든지’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미성년자가 다른 아동에 대해 학대행위를

범한 경우에도 아동복지법이 적용되는지 혼선이 일고 있다.
개정안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서 아동학대 행위의 주체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으로 한정된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누구든지 아동학대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동학대 행위 주체에 대한 법률 적용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로부터 학대 피해를 본 아동에게도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서울=강병호 기자